

2016년 10월 18일

# 투자전략 Daily

- 파생/ETF 전략  
TIPS ETF를 잘 모르는 투자자를 위해
- 중화권 증시 동향  
상해B주 폭락, 중화권 증시 동반 약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유니트론텍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건설, 조선, 면세점, KT&G, 씨젠, 삼성전자, CJ E&M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철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원 자 재 | 서태중 ☎ 3276-6184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10/17(월)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2,031.93	2,033.73	2,015.44	2,022.66	2,027.61	
	등락폭	-24.89	1.8	-18.29	7.22	4.95	
	등락종목	상승(상한)	391(0)	406(0)	183(1)	401(1)	315(1)
		하락(하한)	408(0)	377(0)	635(0)	397(0)	487(0)
	ADR	90.91	94.10	93.18	98.59	94.61	
	이격도	10 일	98.91	99.13	98.42	99.00	99.32
		20 일	99.45	99.61	98.77	99.04	99.22
	투자심리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343	297	440	459	332
	거래대금	(십억 원)	5,341	4,832	4,508	4,189	3,698
코 스 닥	코스닥지수	670.64	669.95	663.09	664.92	659.83	
	등락폭	-4.1	-0.69	-6.86	1.83	-5.09	
	등락종목	상승(상한)	410(1)	492(2)	299(3)	575(2)	354(1)
		하락(하한)	673(0)	578(0)	799(0)	502(0)	726(0)
	ADR	97.17	97.10	96.14	96.45	95.76	
	이격도	10 일	98.30	98.45	97.79	98.42	97.97
		20 일	99.00	98.88	97.88	98.06	97.32
	투자심리	30	20	20	20	20	
	거래량	(백만 주)	644	594	600	608	508
	거래대금	(십억 원)	3,340	3,089	2,930	3,025	2,837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1,732.2	1,266.9	675.6	184.6	71.2	168.5	69.0	9.7	172.6	28.1
	매도	1,780.0	975.8	919.6	484.1	63.2	129.6	66.2	13.0	163.4	27.5
	순매수	-47.8	291.2	-244.0	-299.5	8.0	38.9	2.8	-3.3	9.1	0.6
	10월 누계	9.6	-107.7	30.1	86.1	25.8	-99.9	115.2	-27.6	-69.5	68.0
	16년 누계	-5,282.5	9,673.6	-7,820.2	-2,053.2	733.3	-5,682.8	-883.6	-999.5	1,066.0	3,429.0
	코 스 닥	매수	2,612.5	141.7	72.8	27.0	5.0	16.3	8.0	0.7	15.9
매도		2,534.2	197.9	91.2	26.3	6.0	23.7	13.9	2.3	19.0	23.7
순매수		78.3	-56.2	-18.4	0.7	-1.0	-7.4	-5.9	-1.7	-3.1	-3.8
10월 누계		398.8	-30.2	-290.1	-42.5	-20.2	-117.1	-51.5	-7.3	-51.5	-78.5
16년 누계		5,537.7	872.3	-4,430.9	-608.4	-293.7	-1,526.6	-664.7	-154.3	-1,183.6	-1,979.0

## TIPS ETF를 잘 모르는 투자자를 위해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21배
12MF PBR	0.93배
Yield Gap	8.4%P

- ▶ 미국채 10년 금리 1.8% 도달, TMV long, TIP long 청산
- ▶ 물가연동채, TIPS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 유가 상승이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올 변화

### ■ 미국채 10년 1.8% 도달, TMV long, TIP long 청산 – TMV +13.6%, TIP -0.03%

미국채 10년 1.8% 도달  
TMV long, TIP long 청산

주말(10/14일)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1.8%에 도달했다. 7/19일(“Buy 인플레이션 Sell 디플레이션”)과 8/16일(“초장기채 금리와 배당수익률”) 한투 데일리에서 제시했던 TMV long, TIP long의 ETF 전략을 청산한다. 채권 쏘(TMV)과 TIPS 매수로 금리상승 risk에 베팅하는 전략이었다.

7/19일부터 주말까지 해당전략(TMV 1 매수, TIP 3 매수)은 +13.6%의 수익을 기록했다. TIP ETF가 -0.03% 하락한 반면 TMV는 +13.7% 상승했다. 해당기간 중 TIP ETF에서는 2차례(8/1, 9/1일) 배당 지급이 있었는데, 배당까지 감안하면 총 수익은 +15.9%다.<sup>1</sup>

거래를 청산하는 건 금리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보단 목표한 1차 타킷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9/13일 한투 데일리(“과거 4번의 금리급등 사례”)에선 작년 12월 처음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던 때 선물시장의 금리인상 기대가 80%까지 상승했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시장의 올해 12월 금리인상 기대는 주말기준으로 아직 60%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당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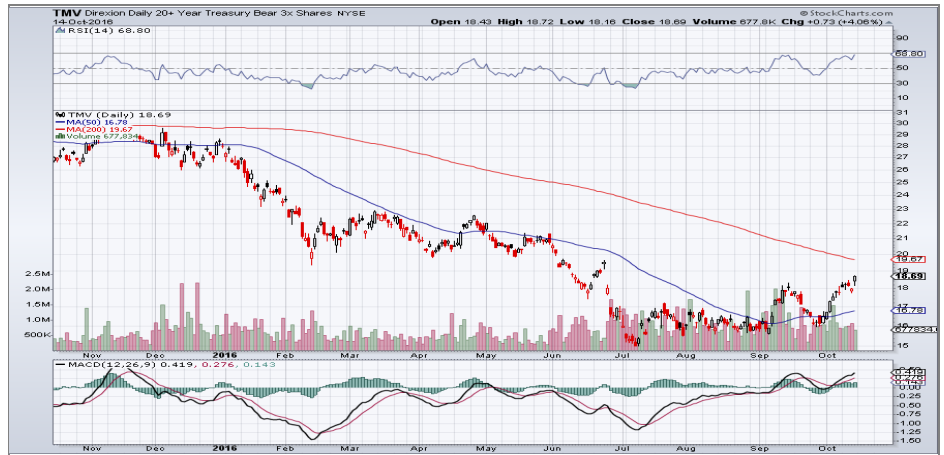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10년 국채금리



자료: Stockcharts.com

<sup>1</sup> TMV(\*1) +13.6% + TIP(\*3) -0.03% + 배당수익 합산한 단순 수익률

[그림 2] TMV (Direxion Daily 20+ year Bear 3X ETF, 최근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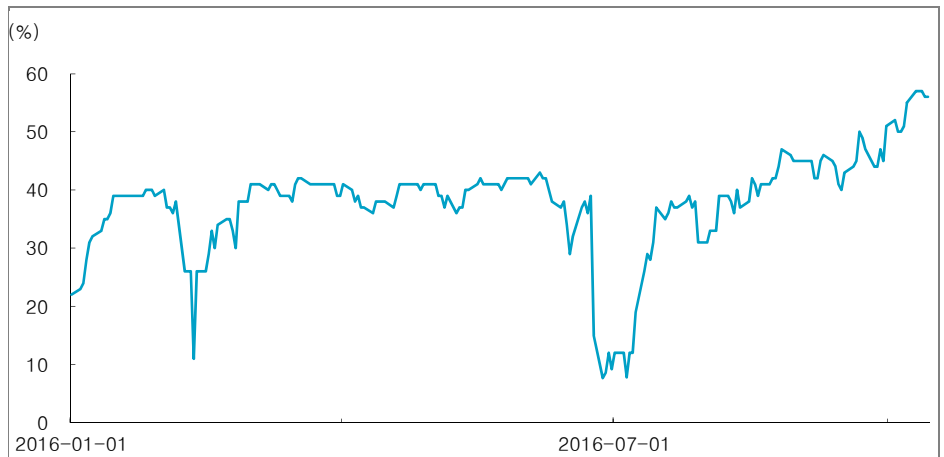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그림 3] 미국 TIPS ETF (iShares TIPS Bond ETF, TIP, 최근 1년)



자료: Stockcharts.com

[그림 4] 12월 FOMC 선물 내재 금리인상 확률 추이



자료: Stockcharts.com

TIPS에 지속적으로 관심

한편 거래 청산과 별개로 TIP ETF, 즉 미국 물가연동채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자료는 TIPS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함께 또한 TIP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TIPS(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물가연동’ 채권이다. 채권의 이자를 물가에 연동해서 준다는 것인데, 왜 TIPS에 주목해야 하는지 TIPS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CPI를 좀 들여다보자.

■ CPI의 항목별 구성비

CPI 항목별 구성비 – 어떤 항목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CPI(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다. CPI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헤드라인 CPI(CPI for All Urban Consumers)의 구성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그림을 보면 헤드라인 CPI를 구성하는 항목 중 Food가 13.8%의 가중치, Energy가 7.2%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다. Food와 Energy를 제외한 나머지(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가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비(Shelter, CPI 중 가중치 33.3%)와 의료비(Medical care, CPI 중 가중치 6.6%)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림 5] 미국 헤드라인 CPI 항목별 구성비

All items (%)	100.0
Food	13.8
Energy	7.2
Energy Commodities	3.4
Energy services	3.7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79.1
Commodities less food and energy commodities	19.3
Services less energy services	59.8
Shelter	33.3
Medical care services	6.6
Transportation services	5.9

주: 2016년 7월 기준

1. Food + Energy +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 All items (100%)

2. Services less energy services + Commodities less food and energy commodities =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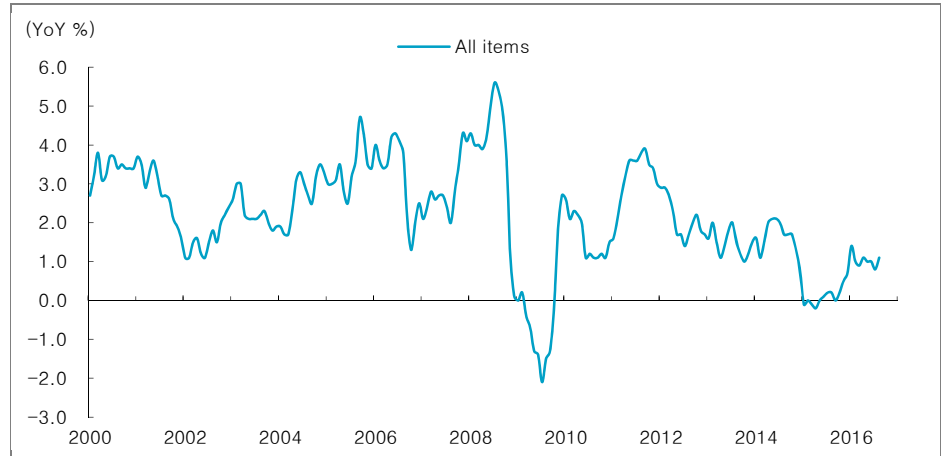
3. Shelter + Medical care services + Transportation services + Others = Services less energy services

자료: US BLS

중요 항목별로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어떤 항목이 CPI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8월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로 1.1% 상승해, 시장 예상을 약간 웃돌았다. 가장 크게 CPI 상승에 영향을 미친 항목은 서비스 부문, 그 중에서도 가중치 33%의 주거비, 그리고 가중치 6.6%의 의료비였다. 주거비는 8월에 전년 대비로 3.4% 상승했고, 의료비는 5.1%나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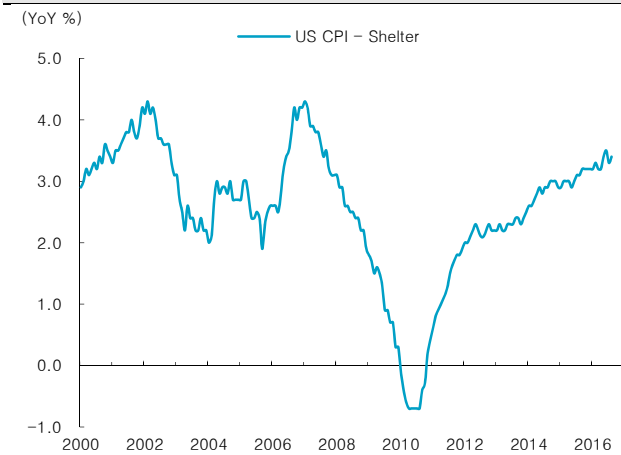
가중치로 환산하면 주거비는 1.1%p, 의료비는 0.3%p 각각 헤드라인 CPI 상승에 기여한 셈인데, 다른 항목 없이 이 두 개 항목만으로 CPI를 구성된다면 8월 수치는 전년비 +1.4%의 증가였을 거라는 얘기다.

[그림 6] 미국 헤드라인 CPI 전년비 변동 추이 - 8월 yoy +1.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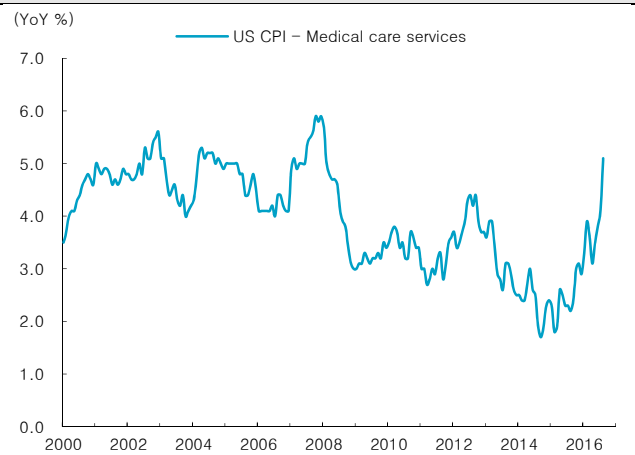
자료: US BLS

[그림 7] CPI 중 Shelter(주거비) - 8월 yoy +3.4% 상승



자료: US BLS

[그림 8] CPI 중 Medical care(의료비) - 8월 yoy +5.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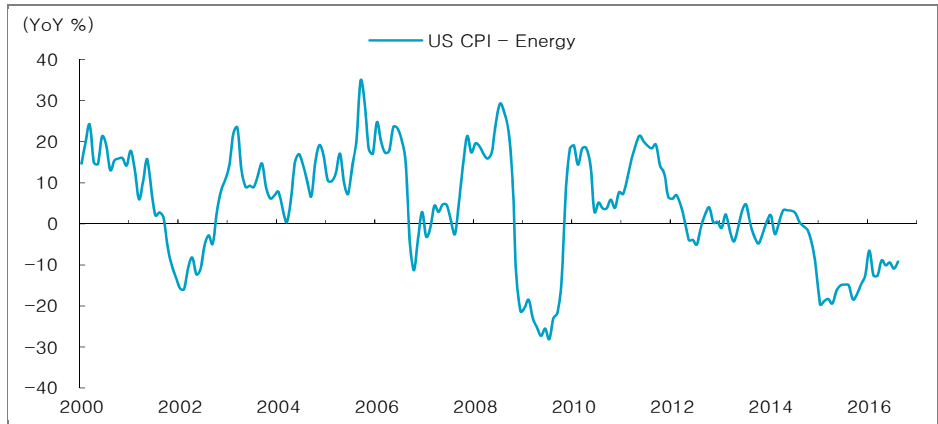


자료: US BLS

CPI 하락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 영향” 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렇다면 반대로 CPI 상승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 바로 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Energy다. CPI 구성항목 중 에너지는 7.2%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데, 8월에 전년 대비로 -9.2% 하락했다. 가중치로 환산하면 헤드라인 CPI에 -0.7%p의 하락 요인이다. 에너지 가격 하락이 없었다면 8월 CPI가 전년비 1.8% 증가했을 거란 얘기다. “물가 하락은 유가 등 하락에 따른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라고 얘기하는 인사들이 많은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9] CPI 중 Energy - 8월 yoy -9.2% 하락



자료: US B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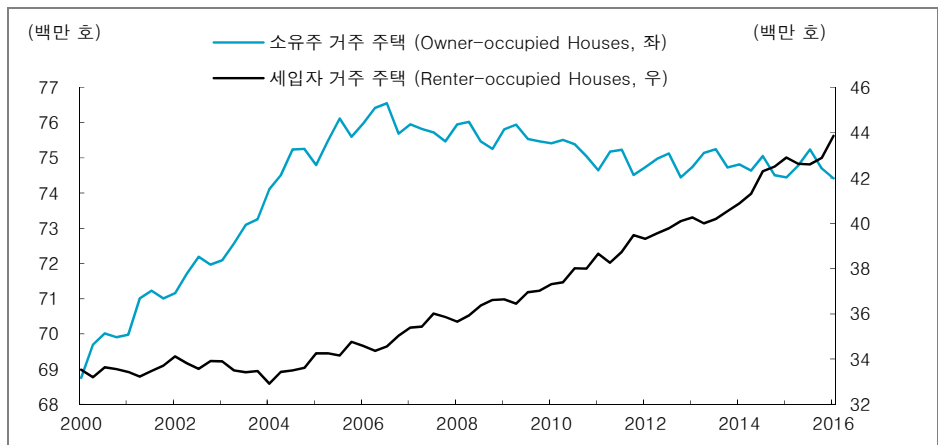
■ 그리고 유가 상승이 가져올 변화

CPI 중 주거비와 의료비의 상승

위 그림들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1) CPI 구성항목 중 주거비와 의료비가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2) 만약 에너지 가격 하락의 (-) 영향이 없어진다면 전체 CPI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자료의 초점 (focus)은 1)보다는 2)의 내용이다.

주거비와 의료비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자. 주거비의 경우 주택소유비중의 정체와 대신 Rent 비중의 빠른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0] 미국 소유자 거주, 세입자 거주 주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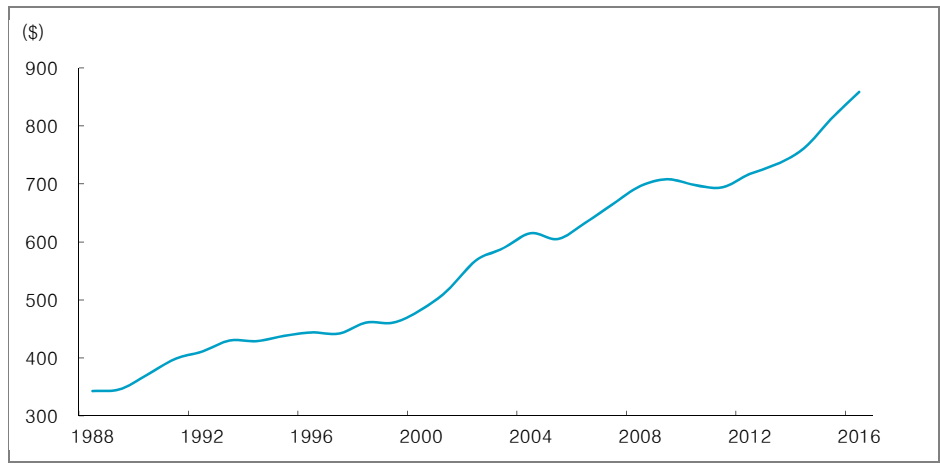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그림 10]은 미국의 자가소유 거주주택(Owner-occupied Houses)과 세입자 거주 주택(Renter-occupied Houses)의 변동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대략 2006~2007년을 peak로 자가소유 주택의 수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Rent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미국의 주택소유비율(Home-ownership rate)는 63.5%로 50년래 최저를 기록한 2015년 2분기 수치(63.4%)와 거의 비슷했다.

그림을 보면 금융위기를 즈음해 최근 10년간 주택시장 구조가 매매에서 임대로 빠르게 전환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를 전후해 미국인들의 심리가 주택을 사는 것보다 Rent하는 쪽으로 확연하게 돌아섰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Rent에 대한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Rent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에 미국의 Rent asking 가격은 중간값 기준으로 \$870 수준을 기록해 역대 최고값을 기록했다.

[그림 11] 미국 Median Asking Rent For Vacant Rent Unit



자료: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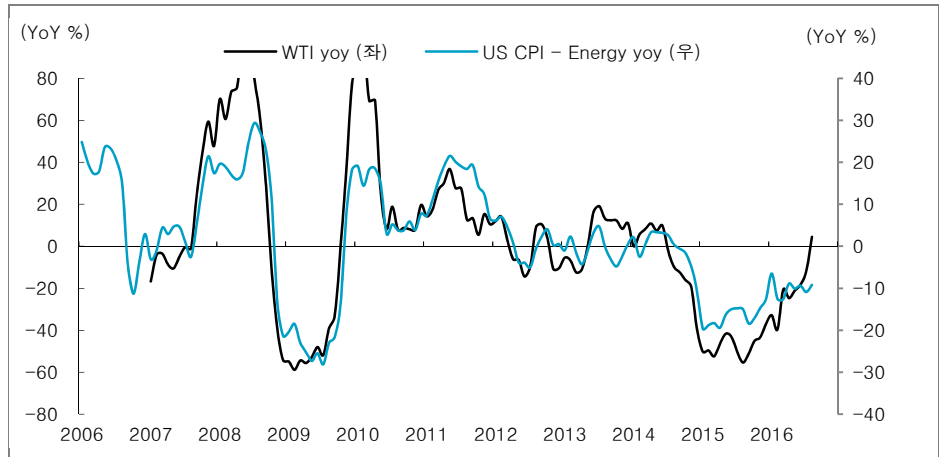
CPI 중 의료비(Medical care services) 항목은 8월에 전년비 +5.1% 상승했는데,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정한 어느 한 가지 원인보다는 병원 서비스 비용과 처방약 (prescription med) 가격의 상승, 자기부담금 비중이 높은 의료보험(high deductible plan) 비중의 확산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유가 하락의 (-) 영향이  
없어진다면?

중요한 점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주거비와 의료비 항목에 대해 최근 상승을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분석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의료비와 주거비만 봤을 때는 높았을 물가상승세가 그 동안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속된 것에 Energy,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제 두번째 의문점, 유가 부분을 살펴보자.

CPI 중 에너지 항목이 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앞에서 적은 이유는 아래 [그림 12] 때문이다. 그림은 CPI 중 Energy 항목의 전년비 변동률 WTI 유가의 전년비 변동률과 함께 그린 것이다. 두 수치의 궤적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을 알 수 있다(왼쪽 축과 오른쪽 축의 절대수치가 다른 점은 참고해야 한다. 유가 변동폭은 CPI 변동폭의 대략 2배다).

[그림 12] CPI 중 Energy, WTI 유가 yoy 변동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유가에 대한 전망

우리는 OPEC의 감산 합의 영향으로 유가가 기존 박스권인 \$40~50을 벗어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감산 합의가 유가의 하방 경직(예를 들면 \$45 수준에서) 유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산 합의로 인해 유가는 기존의 \$40~50 박스권에서 상향된 \$45~60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가 다시 급격한 하락 없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7월까지 유가(WTI)는 월평균 기준으로 매월 두 자리수대 비율로 전년비 하락을 기록했다. 8월부터는 유가의 전년비 하락폭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현재의 유가 수준, \$50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1월에는 전년비 +16.5% 상승, 12월에는 전년비 +34% 상승으로 급격히 반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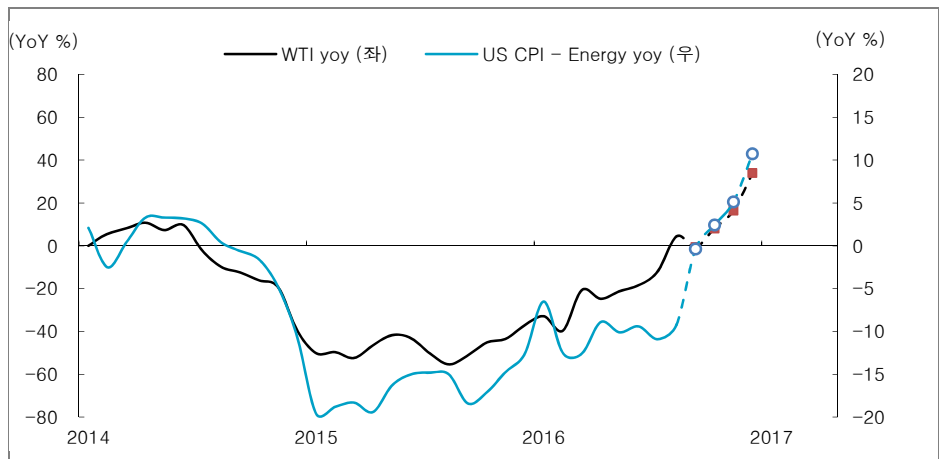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기저효과(base effect)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월간 평균 기준으로 WTI 유가는 올해 6월이나 \$40대 후반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기저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2017년 1, 2월이다. 올해 1, 2월에 유가가 바닥권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가의 기저효과는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를 비롯해 여러 주요 명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가 상승이 가져올 변화

여하간 다시 CPI로 돌아와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유가와 CPI 중 Energy 항목의 전년비 변동을 단순한 방식으로 회귀 분석해 보면, 유가의 전년비 변동이 +16.5%, +34%일 때(유가 \$50 가정), Energy 항목의 전년비 변동은 각각 +5.1%, +10.8% 상승으로 계산된다. 가중치를 고려하면 Energy 항목이 헤드라인 CPI에 미치게 될 영향은 각각 +0.4%p, +0.8%p 이다.

8월의 수치를 예로 들면 -0.7%p 였던 (-) 기여도가 큰 폭의 (+)로 반전하면서 CPI가 2%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다른 항목의 영향을 배제한 단순한 방식의 계산이지만 현재의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올해 내내 물가에 상당한 (-) 영향을 미쳤던 유가 관련 요인이 연말로 가면서 상당한 폭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림 13] 연말까지 \$50 유가 지속될 경우 - CPI 중 Energy 항목 전년비 변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TIPS에 대한 이해

TIPS의 이자(coupon) 지급방식

유가 변동과 CPI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하게 적은 이유는 헤드라인 CPI 변동이 TIPS의 투자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IPS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 적었듯이 TIPS(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물가연동 채권(inflation-protected bonds)이다. TIPS의 액면가(face value)는 다른 채권과 달리 인플레이율에 따라 새로이 조정된다. 그리고 그렇게 조정된 액면가에 적용한 이율(coupon)로 이자를 지급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 \$1,000을 2% 금리 이자를 주는 TIPS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2%가 이율(coupon rate)이다. 이 상황에서 최근 1년간 물가가 3% 올랐다고 가정하자. TIPS의 액면가는 \$1,030로 조정된다(\$1,000\*3%). 이자는 조정된 액면가에 이율을 곱해 지급된다. 즉  $\$1,030 \times 2\% = \$20.6$ 을 이자로 지급한다. CPI가 2%, 3%를 기록할 때 TIPS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TIPS ETF, iShares TIPS Bond ETF (TIP)은 중장기 TIPS 채권을 편입해 운용한다. 편입 채권의 평균 듀레이션은 8.5년이다. 듀레이션을 언급하는 이유는 TIPS 역시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상승 risk(채권의 가격하락 risk)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고 인플레이 상승에 따른 이익만 얻기 위해서는 비슷한 듀레이션의 채권 short 포지션을 함께 보유해야 한다. 채권 숏 + TIPS 롱 포지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표 1> iShares TIPS Bond ETF (TIP)

시가총액 (Net Assets, 백만 달러)	19,079
상장일 (Inception Date)	2003년 12월 04일
자산 구분(Asset Class)	채권(Fixed Income)
일평균 거래(20d average, Shares)	413,033
배당수익률 (12m trailing, %)	1.24
듀레이션 (Weighted Average Maturity, 년수)	8.56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상해B주 폭락, 중화권 증시 동반 약세

- ▶ 상해종합지수 0.7% 하락, 지표발표를 앞두고 경제심리 확대 속에 상해B주의 폭락이 약재
- ▶ 홍콩H지수 0.6% 하락, 자금 유출 우려 확대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가 약재로 작용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7% 하락,  
원림공업, 통신서비스, 환경  
공정 등의 업종 약세

상해종합지수는 0.7% 하락한 3,041p로 마감했다. 오전장 등락을 보이던 증시는 마감직전 상해B주의 폭락에 동조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1,806억위안으로 직전거래일 대비 약 140억위안 늘었다. 이번 주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과 9월 통화지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제심리가 짙어졌다. 상해B주가 급락한 것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확대됐으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약재로 작용했다. 또한 증권등기결산공사에서 인당 소유 계좌 개수를 제한한 것과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된 것이 증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원림공업, 통신서비스, 환경공정, 화학비료, 조선, 증권 등의 업종이 하락했다. 한편 금일 유인 우주선 선저우 11호 발사 성공으로 관련 업종들은 강세를 보였다. 심천 성분지수와 차스닥은 각각 1.0%, 1.2% 하락했고, 외국인 전용 거래시장인 상해B주는 오후 들어 위안화 환율 절하 기조 등의 약재로 6.2% 폭락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후강통을 통해 매도세를 이어갔다.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6% 하락,  
소비재, 통신서비스, 유틸리  
티 등의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0.6% 하락한 9,541p로 마감했다. 하락 출발한 증시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다. 금주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위안화 약세와 상해B주의 급락 등으로 자금 유출우려가 확대된 것이 약재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된 것과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약세로 전환한 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소비재,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금융, 에너지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0/17(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041.17	-0.74	-0.23	1.28	-14.07
심천종합	2,027.56	-0.94	-0.29	2.39	-12.19
차스닥	2,167.86	-1.20	-1.84	1.09	-20.12
홍콩H	9,541.08	-0.63	-3.86	-0.57	-1.24
Shibor 7일물 금리(% , %p)	2.38	0.04	-0.34	-0.71	0.85
Shibor 1개월 금리(% , %p)	2.71	-0.03	-0.17	0.90	-9.72
중국국채 3년물(% , %p)	2.36	-0.19	-0.11	-2.71	-8.00
위안/달러 고시환율	6.7379	0.33	0.18	0.72	3.76
역내 위안/달러	6.7382	-0.15	-0.46	-1.03	-3.63
역외 위안/달러	6.7481	-0.16	-0.46	-1.22	-2.66

주: 17일 오후 6시 8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G2의 지표호조 및 미 금리인상 우려가 엇갈리며 국내증시는 혼조세

- 미국시장이 지난주 말 경기지표 호조와 연내 금리인상 우려가 맞물리며 소폭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금융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도세로 하락반전하며 10P 이상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장중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전환 및 외국인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으로 재차 오름세로 돌아서며 강보합세로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시장은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반전하며 660P선이 무너지는 약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이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하였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며, 하나금융지주는 3분기 호실적 전망 및 기업여신 총당금 완화 가능성에 신고가를 달성. SK와 SK텔레콤은 SK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에 동반 강세를 보였으며, STX중공업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오름세를 나타냄.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화신테크는 이틀 뒤 테슬라가 신차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었으며 백산은 중국 등에서 글로벌 브랜드 운동화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에 강세를 보임. 반면, 해태제과식품은 허니버터칩 판매 부진에 따른 고정부담 증가 우려에 약세를 보였으며, 큐브엔터는 주요 아티스트 중 하나인 비스트의 계약 만료에 따른 탈퇴 우려로 급락세를 나타냄

종목/테마	내용
미투온(201490) ▶6,160(상한가)	<p><b>중국 및 북미시장 진출 기대감에 상한가 기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시아 및 홍콩 시장을 중심의 고객기반을 둔 소셜카지노 게임 전문기업으로 풀하우스 카지노, 플랫폼 홀덤 등의 소셜카지노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여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보유</li> <li>- 2016년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입, 향후 북미와 유럽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카지노 게임 서비스 제공 및 VR 도입을 통한 콘텐츠 확대를 기대</li> </ul>
2차전지 관련주	<p><b>전기차 대중화에 따른 중대형 2차전지 시장 성장 기대감에 동반 강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6일 끝난 2016 파리 모터쇼에서 1회 총정으로 최대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등장하면서 전기차 대중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2차전지 시장 본격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며 관련주 동반 강세</li> <li>- 코센(009730, +13.55%), 피엔이솔루션(131390, +6.14%), 엔에스(217820, +4.53%), 솔브레인(036830, +4.10%), 피엔티(137400, +1.12%) 등</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종목	내용
쌍용머티리얼(047400) ▶4,210(상한가)	- 자동차 부품 소재사업 강화를 위해 한화 및 LG그룹 등이 쌍용머티리얼 인수전에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에 신고가 기록
하나금융지주(086790) ▶31,300(+3.30%)	- 기업여신 총당금 우려 완화 및 3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유니트론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유니트론텍 (142210)	35,450 (+34.8)	26,300 (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작년부터 발생한 대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li> <li>- '시리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조인트벤처 '유니트론텍차이나' 설립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li> </ul>
큐리언트 (115180)	40,100 (-13.9)	46,600 (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2A상을 완료한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제 Q301의 기술 이전 기대감 여전. 아토피 치료제 전문회사인 '아나코'를 화이자가 52억 달러에 M&amp;A하면서 아토피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짐</li> <li>- FDA로부터 Q203은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조건부허가를 받게 되면 Priority Review Voucher를 획득할 전망. 마지막으로 거래된 PRV의 가격은 3억5천만달러로 현재 시총을 감안할 때 bottom Value 매력 존재</li> </ul>
진성티이씨 (036890)	6,400 (+6.1)	6,030 (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인프라투자 증가 기대감으로 Caterpillar,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이들 업체에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공급중인 동사의 수혜 가능성 상존. 비용 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li> </ul>
아진산업 (013310)	11,200 (+6.7)	10,500 (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li> <li>-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평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은 여전한 상황</li> <li>-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li> </ul>
싸이맥스 (160980)	14,850 (+4.9)	14,150 (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li> <li>-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향후 삼성전자 외 중국 업체 등으로 고객 확대 가능성 및 후공정 패키징 이송장비 등 제품 다변화에 주목</li> </ul>
베셀 (177350)	6,910 (+36.1)	5,079 (0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 CEC-Panda, CSOT, Tianma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중국 LCD In-Line 시스템 제조 분야 시장점유율 1위로 고객사들과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li> <li>-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대형 LCD 투자에 따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며,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전망</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베셀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가 발생해 수정주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마트 (139480)	166,000 (+5.7)	157,000 (09/22)	14,600	501	296	10,619	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마트가 90%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의 제1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최근 오픈. 2021년까지 총 6개의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li> <li>- 스타필드하남은 스포테인먼트 시설과 유명 맛집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63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li> </ul>				
씨엠에스에듀 (225330)	31,400 (+16.7)	26,900 (08/26)	56.8	10.7	8.9	2,244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매출 상승세 지속</li> <li>- 적영점 및 가맹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 진출 본격화</li> <li>- 16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주요 사교육업체 평균 예상 PER 17배 수준 대비 저평가</li> </ul>				
비아트론 (190510)	20,800 (-23.0)	27,000 (08/26)	91.6	24.5	17.7	1,731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를 시작으로 Tianma와 Visionox 등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설비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LG디스플레이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 설비투자 관련 장비 발주 예상</li> <li>- 주요 고객사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li> </ul>				
대상 (001680)	27,800 (-5.3)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li> <li>-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li> <li>-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li> </ul>				
SK머티리얼즈 (036490)	150,500 (+21.4)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li> <li>-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li> </ul>				
한섬 (020000)	41,300 (+2.4)	40,350 (04/22)	710	84	69	3,132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li> <li>-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li> <li>-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건설: 사우디 입찰시장의 변화, 비정상의 정상화

### ■ 스페인 TR의 공격적 수주에 제동, 우스마니아 가스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로 변경

TR은 2011~2015년 연평균 수주성장률 35%의 공격적 행보로 한국 EPC의 점유율을 대부분 가져간 업체로 유명하다. 지난 3년간 한국의 입찰가보다 20% 싼 가격으로 중동 수주를 휩쓸었다. 이는 시장이 ‘한국EPC의 구조적 de-rating’ 을 거론하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됐다. 그러나 10/14字 MEED projects(중동 프로젝트 tracker)에 따르면, 아람코는 지난 8월 TR이 로이스트(최저가 낙찰업체, 6억달러)가 된 ‘우스마니아’ 가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를 3위 가격인 8억달러를 써낸 현대건설로 변경하며 TR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 9월, TR이 역시 로이스트가 됐던 아람코의 ‘라스타누라 CFP’ 도 TR과 계약할 확률이 낮아졌다. 현재 아람코는 타 업체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패키지 1은 11억달러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JGC가 입찰 중이다.

### ■ TR의 과도한 수주 증가는 잦은 공사차질과 클레임으로 이어져

TR은 한국과 유사하게 중동 화공플랜트에 집중하는 스페인 업체다. 2015년 수주 67억유로, 수주잔고는 121억유로로 2012년 대비 두 배 커졌다. 2015년 사우디와 쿠웨이트 대형 공사(지관 정유 27억달러, 파드힐리 가스 30억달러 등) 싹쓸이로 수주잔고의 63%가 중동이다. 영업이익률은 5~6%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4분기 적자로 2015년은 2%로 하락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4%로 회복되는 듯 하나, 2분기 신규수주는 처음으로 ‘0’ 를 기록했다. TR은 저가로 투찰한 뒤, 공사기간 중 잦은 클레임으로 공사차질을 반복한 것이 발주처로부터 신뢰저하를 자아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CEO는 수주보다 수행(execution)에 집중할 것임을 밝히며 공격적 수주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보였다.

### ■ 비정상의 정상화, 저유가 피해주의 회복

2013년 어닝쇼크 후, 한국EPC의 중동 점유율은 2010년 39%에서 2015년 9%로 급감했다. 동기간 TR의 점유율은 1%에서 8%로 상승했다. 40%에 달했던 한국의 점유율도 과도했다면 TR의 점유율 급등도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저가수주의 후유증은 수주 3~4년 뒤부터 수행의 질적 하락으로 나타난다. 발주처들도 이를 체감하기 시작하며 초기 입찰가보다 total cost(공기 준수, 법적 대응비용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비용)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이유로 한국EPC의 비중확대를 권유한다.

1) 글로벌 재정확대 속 인프라와 산업플랜트 투자 사이클이 예상된다. 한국의 새로운 유망시장은 아시아와 이란이다. 2) 유가가 \$40/b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지난 2년간 기술개발로 경제적 유가수준을 \$25/b까지 낮춘 국제석유회사들도 나타났다. 지난 8월, Statoil이 발표한 스페르드롭 유전개발이 그 예다. 유가 변동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투자 결정은 과거 대비 조금이나마 용이해질 것이다. 3) 사우디 입찰시장이 점차 합리적으로 변하며 한국 EPC는 시장 축소와 점유율 상실의 이중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올해가 건설사 체질 개선의 시기였다면 2017년부터 시장 변화와 함께 한국 EPC의 본격 성장을 예상한다. Top picks는 대림산업, GS건설, 차선호주는 현대건설을 유지한다. 그러나 산업 전반의 비중확대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종목간 매력도의 편차는 크지 않다.

### ■ 시장보다 점유율 하락이 문제였으나

엄밀히 2015년에도 중동 발주는 크게 줄지 않았다. 한국EPC의 중동 점유율 하락이 해외수주 부진의 주요인이었다. 2015년 중동 화공플랜트 시장을 휩쓴 업체는 유로화 약세와 현안 프로젝트의 마무리에 집중한 한국EPC 위축의 반사 효과를 입은 TR, 페트로팩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조선: 3Q Preview: 안도의 3분기

### ■ 대부분 흑자전환 예상

3분기 조선업 실적은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전환을 예상한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의 합산 매출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13.2조원,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2% 감소한 3,410억원을 예상한다. 현대중공업은 오일뱅크의 재고평가손실 등으로 2분기 대비 부진하나 상선은 상반기 보였던 영업이익률 4%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상선 건조의 안정화로 영업이익률 6%를 예상한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 인력구조조정 비용을 배제하면 800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한 셈인데, 3분기 600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해양 비용은 없을 전망이다. 손익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려면 2018년 이후는 되어야 하나,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 ■ 여전히 부족하지만 4분기 들어 수주 회복 중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수주는 본사기준 14억달러 목표 116억달러의 12% 수준이다. 현대미포조선은 2억달러, 삼성중공업은 4억달러(연내 발효분 LNG선 2척 감안 시 6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10개월의 수주 공백을 깨고 9월말부터 상선 수주가 시작되는 등, 미약하지만 회복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BP와 LNG 조건부 판매계약을 마친 만큼 삼성중공업은 11월 모잠비크 Coral FLNG의 계약 가능성도 높다.

지난 9월, IMO는 2017년 9월 8일부터 BWTS(선박평형수) 장착 의무화를 발표했다. CO<sub>2</sub>, SO<sub>x</sub>, NO<sub>x</sub> 저감 등 다양한 선박 규제가 눈앞에 다가오며 20년 연령을 기점으로 선박 해체가 본격화될 것이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탱커에도 LNG 추진선의 옵션이 달렸다. 선주가 향후 LNG 추진선으로 변경할 경우, 삼성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LNG 추진선의 실적을 갖게 되며 선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선박규제로 기존연료(HFO) 외에 LNG ready 선박이나 오염물질 저감/업그레이드 엔진을 장착한 신조발주가 시작되는 첫 신호다.

2006~2015년 탱커 해체량은 연평균 32척이었으나 2016~2025년 해체 가능 탱커수는 30년 연령 가정시 연평균 11척, 20년 가정시 82척으로 크게 늘어난다. 낮아진 신조선가와 규제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모두 4분기 10억달러 내외의 상선 수주가 기대된다.

### ■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향방이 업계 구조조정에 중요 변수

대우조선해양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뒤, 한국거래소는 2017년 9월 2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중 주식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작년 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기로 한 4.2조원 중 잔여 1조원의 자금 지원 시기는 아직 미확정이며 예상하기 어렵다. 대우조선은 현재 1.3만명의 인력 중 30%를 연말까지 줄일 계획이다. 올해 플로팅 도크 5개 중 2개를 매각했고 나머지 3기도 추후 매각할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구조조정으로 2018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은 작년의 1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삼성중공업은 작년의 10조원에서 7조원으로, big3의 외형은 30%이상 감소한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다. 가장 빠른 구조조정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선호한다.

### ■ 현대중공업, 비조선 사업부 내년 3월까지 계열사 독립

현대중공업은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등 비조선 사업부 대부분을 내년 3월까지 계열사로 독립시키고 일부 사업부는 청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로봇부문 분사는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며 이어 그린에너지 사업부 분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비조선 사업부 모두 계열사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엔진기계, 전기전자, 건설장비의 직원은 약 6천명에 달해 예정한 대로 분사가 실행되면 현대중공업 본사의 비용 효율화와 조선해양 사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본업에 집중 등이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면세점: 3Q16 Preview: 비우호적인 환율, 경쟁 지속

### ■ 이익 턴어라운드 국면 진입, 그러나 경쟁 심화는 지속

메르스 기저효과로 면세점 사업자들의 3분기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될 것이다. 7~8월 누적으로 출국자수는 18.2%, 외국인입국자수는 98.2% 늘었고, 같은 기간 국내 면세점 매출액(달러기준)은 77.3% 증가했다. 그러나 이익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1) 비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원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 후발 업체들의 고객 유치 및 일매출 증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집행을 지속하고 있고 기존 업체들은 점유율 수성을 위한 대응으로 판촉활동이 상반기대비 크게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4일, 관세청은 서울 4개(대기업 3개, 중소·중견 1개), 부산 1개, 강원 평창 1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을 마감했다. 예정대로면 금년 말 사업자를 발표할 전망으로 사업자간 경쟁심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 호텔신라: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할 것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231억원(+40.0% YoY), 240억원(+746.1% YoY)으로 예상된다. 전년 기저 효과가 더해진 내외국인 출국자수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시내점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8%, 공항점은 11%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324억원)를 26% 하회할 전망이다.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별도기준 원가율이 3%p 상승한 것으로 예상되고 치열한 판촉 활동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점은 턴어라운드가 예상됐으나 원가율 부담 등으로 적자를 지속했고 김포공항점은 분기 중 철수해 4분기부터는 적자 축소에 기여할 것이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점은 매출액 1,231억원(+17.4% YoY), 영업손실 75억원(3Q15 139억원 손실)으로 예상돼 적자폭을 전년동기대비 축소할 것이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두자리수의 일평균매출액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점진적인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 내 입지에 기반한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호텔신라에 대해 목표주가 84,000원(2017년 PER 26배 적용)을 유지한다.

###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적자 지속,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3분기 매출액은 828억원(+122.9% YoY), 영업손실 12억원(적자전환)을 기록할 전망이다. 백화점 부문은 리뉴얼 효과등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가상각비 증가로 이익 개선폭은 0.9%에 그칠 것이다. 전분기 흑자전환한 제주공항 면세점은 영업 정상화로 매출액 증대에 힘입어 19억원의 영업이익(3Q15 영업손실 18억원)을 달성할 것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한자리수 후반의 일평균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어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3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간 경쟁 심화로 고객 유치를 위한 판촉 및 마케팅 부담이 지속돼 9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면세점 적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백화점 부문이 감가상각비 증가로 이익 증가폭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금년 말 서울 시내면세점 4개(대기업 3개, 중소·중견 1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내년에도 업체간 경쟁 강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익 안정화 구간에 진입하지 못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서울 면세점 사업부의 실적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면세점의 적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KT&G(033780)

<b>매수(유지)</b>
목표가: 165,000원(유지)
종가(10/14): 115,000원

## 3Q16 Preview: 펀더멘털 강자를 살 수 있는 기회

### ■ 3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충분히 부합할 듯

3분기 KT&G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1조 2,024억원, 영업이익은 9.4% 증가한 4,056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인 3,989억원을 1.7% 상회할 전망이다. 실적은 KT&G 별도 법인과 자회사 한국인삼공사(이하 KGC)의 실적이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담배 매출액은 시장 물량이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고, 점유율이 59.2%에서 59.7%로 상승, ASP가 면세품 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3.6% 올라 6.3% 증가할 전망이다. 담배 소비 회복은 마무리 국면으로 보이나, 동사가 최근 론칭한 캡슐형 신제품들이 계속 인기를 끌며 점유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담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과 전년 동기의 달러ASP 기저가 높았던 것이 부담이었다. 일부 항만 하역 문제도 있어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KGC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 28.6% 증가하며 예상보다 우수한 실적을 실현할 것이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에브리타임’, 기능성제품 ‘화애락’ 등의 고성장이 지속돼 내수가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KGC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3%p 개선된 20%로 올라설 것이다. 영업외수지에서는 기말 원/달러 환율의 전분기대비 하락으로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국정감사로 인한 악영향 제한적, 매수 기회

어제와 금일 주가 하락의 배경은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2015년 초에 발생한 담배제조사들의 재고 관련 차익에 대한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KT&G의 재고 차익은 3,187억원이라 밝혔는데, 동사 영업소의 통상적인 재고 보유기간이 2.5주~3주 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익 규모는 실현 가능한 숫자다. 즉 동사가 2014년 9월 12일에 발령된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2014년말까지의 담배 생산, 판매량은 1~8월 월간 판매량의 104%까지로 제한)를 위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 감사로 인한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세무조사가 앞당겨진다 던지 아니면 사회환원활동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 동사는 이미 지난해 2분기에 이 재고 차익을 바탕으로 3,3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향후 4년간 사회복지, 문화예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4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사회환원 비용은 매년 500~6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800억원대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난해 수준의 환원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비용을 실적 전망에 반영하고 있어 추가 조정은 없다. 양호한 실적이 계속될 것이고, 세무 조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4,113	1,172	826	6,558	44.7	1,334	11.6	7.0	1.8	15.1	4.5
2015A	4,170	1,366	1,036	8,222	25.4	1,528	12.7	8.3	2.2	17.5	3.3
2016F	4,440	1,475	1,150	9,120	10.9	1,641	12.6	8.3	2.2	17.6	3.1
2017F	4,688	1,605	1,254	9,942	9.0	1,770	11.6	7.3	2.0	17.3	3.3
2018F	4,902	1,703	1,339	10,616	6.8	1,872	10.8	6.6	1.8	16.7	3.5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씨젠(096530)

<b>매수(유지)</b>
목표가: 43,000원(유지)
종가(10/14): 34,550원

## 3Q16 Preview: 양호한 실적과 ODM 모멘텀

### ■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

3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은 186억원(+22.0% YoY)과 영업이익은 27억원(+94.9% YoY)으로 예상돼 컨센서스(매출액 185억원, 영업이익 27억원)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은 대체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인데 유럽지역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미주 지역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대폭 늘어나는 것은 3Q15에 해외 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으로 영업이익률이 8.9%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 ■ ODM 매출은 2017년부터 시작될 전망

씨젠은 3건의 ODM 계약을 14, 15년에 체결했다. 17년 ODM 예상 매출액은 51억원이다. 베크만 쿨터와 계약한 제품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CE 인증을 거쳐 17년 상반기에 매출이 시작될 전망이다. 퀴아젠과 백톤 디킨슨 대상 ODM 제품의 개발 및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17년 말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3건의 ODM 계약 외에도 연내에 추가 ODM 계약 성사가 예상돼 다시 한번 분자진단 기술력 우위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 ■ 향후 3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47.3% 증가 예상

16년 영업이익은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증가로 15년 영업이익률은 13.3%로 낮아졌으나 16년 14.0%, 17년 19.2%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익률 개선의 주된 요인은 ODM 매출 본격화와 해외 사업 확장이다. ODM 제품은 판관비 부담이 낮아 이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또한 해외 법인의 영업 현황이 좋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입찰로 5년간 약 100억원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 17년 영업이익은 올플렉스 제품 채택 증가와 ODM 제품 공급 시작으로 수익이 늘어 62% 증가할 전망이다.

### ■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3,000원 유지

씨젠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3,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씨젠 자체사업 가치 3,850억원에 ODM 사업가치 6,960억원을 더하는 SOTP 방식으로 산출했다(표 2, 3). 분자진단은 2012-2017년 연평균 성장률이 15.2%에 달해 체외진단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다. 주가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으로 하락세다. 양호한 3분기 실적과 추가 ODM 계약 가능성을 감안하면 매수 기회다. 매 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내년부터 ODM 매출이 시작돼 수익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다. 리스크 요인은 ODM 시약 개발 및 제품화 지연과 수출이 대부분으로 환율 민감도가 다소 높은 점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64	11	9	364	(6.7)	17	89.4	31.9	8.0	10.2	-
2015A	65	9	7	264	(27.5)	15	143.4	63.6	6.9	5.9	-
2016F	74	10	8	295	11.7	17	117.1	50.9	6.0	5.5	-
2017F	88	17	14	518	75.4	25	66.7	34.4	5.5	9.1	-
2018F	114	27	21	824	59.2	37	41.9	23.3	4.9	12.9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삼성전자(005930)

<b>매수(유지)</b>
목표가: 1,950,000원(하향)
종가(10/14): 1,577,000원

## 갤럭시노트7 단종의 직접적 영향으로 4Q16 OP 1.8조원 하향조정

### ■ 4분기 부문별 영업이익 IM 1.4조원, DP 0.3조원, 반도체 0.1조원 하향

당초 예상했던 4분기 갤럭시노트7 판매량 5.5백만대가 감소하면서 IM부문 영업이익이 1.4조원 줄어든 전망이다. 그리고 갤럭시노트7에 적용되는 플렉서블 OLED패널, AP(Application Processor)를 포함한 반도체 등 부품의 공급차질을 고려해 DP와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각각 0.3조원, 0.1조원 하향했다. 회사가 언급한 4분기 손익 영향 2조원 중반과의 차이는 대부분 예상 판매량의 차이에 기인한다.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은 7.1조원으로 당초 추정치 8.9조원 대비 21% 낮아졌다. 4Q16과 1Q17 이익추정치 하향으로 목표주가 산정 기간의 이익이 6% 낮아져 목표주가를 1,950,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 ■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시스템LSI의 실적에는 부정적

갤럭시노트7의 판매중단으로 인해 DRAM과 NAND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메모리사업 매출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내부매출 비중이 10% 중반 정도이고 이 중 갤럭시노트7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또한, 갤럭시노트7의 판매가 줄어드는 대신 아이폰7을 포함한 타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해 외부 고객의 메모리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메모리 제품의 매출 차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시스템LSI사업부의 AP와 이미지센서 등은 당장 다른 고객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어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스템LSI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 대비 각각 7%, 54% 하향 조정했지만 반도체부문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는 3.7조원으로 기존 대비 4% 낮아지는데 그쳤다.

### ■ 플렉서블 OLED패널 매출 차질 반영해 DP부문 영업이익 0.9조원으로 23% 하향조정

갤럭시노트7에 적용되고 있는 플렉서블 OLED패널의 매출 차질을 반영해 4분기 DP부문의 영업이익을 0.9조원으로 기존 대비 23% 하향조정했다. 스마트폰용 패널의 경우 개별 모델의 사양에 맞게 생산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대체할 고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플렉서블 OLED패널의 생산 및 판매 차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대형 LCD패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일부 생산라인의 유리기관 OLED패널 생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기회손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 ■ 2017년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2017년 전사 영업이익은 33.8조원으로 기존 대비 3% 하향조정에 그쳤다. 반도체와 DP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상반기 판매량 감소로 인한 기회손실만 반영했다. 갤럭시S8에 대한 영향을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06,206	25,025	23,082	153,105	(22.6)	43,078	8.7	3.9	1.3	15.1	1.5
2015A	200,653	26,413	18,695	126,305	(17.5)	47,344	10.0	3.1	1.2	11.2	1.7
2016F	197,478	27,069	19,575	136,956	8.4	48,609	11.5	3.7	1.3	10.8	1.3
2017F	205,658	33,796	24,126	170,794	24.7	59,358	9.2	2.8	1.2	12.1	2.0
2018F	215,941	35,015	25,169	178,158	4.3	63,020	8.9	2.6	1.1	11.4	2.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CJ E&M(130960)

**매수(유지)**

목표가: 95,000원(유지)

종가(10/14): 72,400원

## 3Q16 Preview: 방송 · 미디어 역량 강화는 지속

### ■ 3분기 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723억원(+0.6% YoY), 110억원(-18.7% YoY)로 예상돼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3.4%, 26.4% 하회할 전망이다. 방송 부문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금년부터 적용된 드라마 상각연수(4년→1.5년) 변경에 따른 상각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화 부문은 큰 흥행을 거둔 ‘베테랑(관객수 1,341만명)’ 및 ‘중반20세(‘수상한 그녀’ 중국판, 중국내 1,164만명 관객 동원)’의 관련 수익 등이 반영됐던 전년 동기 부담을 이기지 못했고 성수기 흥행을 노렸던 ‘고산자, 대동여지도(97만명)’가 흥행에 실패했다. 3분기 영화부문은 1) 인천상륙작전(705만명) 극장 매출, 2) 아가씨 관련 판매수익, 3) 고산자 극장 매출 등이 반영될 예정으로 전분기에 이어 영업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미디어 부문 경쟁력 강화 지속 vs. 아쉬움이 남는 영화 부문 실적

방송 부문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능력에 따른 성과 확대와 다각화된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방송 및 광고 판매 증대가 새로운 성장의 활로가 되고 있다.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Studio Dragon)은 제작사 화엔담픽처스, 문화창고, KPJ를 통해 양질의 라인업을 강화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익 규모 확대를 견인할 것이다. 금년 현 시점까지 보면, 영화 부문 실적은 전년대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추석 시즌을 겨냥했던 고산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9월 말 개봉한 이수라가 뒷심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분기 중에 형(11월 예정), 마스터(12월 예정) 등이 개봉할 예정으로 흥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흥행 추이에 주목해볼 만하다. 금년 영화부문은 41억원 영업손실로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 ■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이익 개선 전망, 매수 의견 유지

CJ E&M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95,000원(SOTP 방식 적용)을 유지한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4분기 방송 부문은 안투라지(tvn, 11월 4일 방송 예정)가 중국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고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한 도깨비(tvn, 12월 2일), 푸른바다의 전설(SBS, 11월 예정)이 방송을 탈 예정이다. 상각연수 변경에 따른 상각비 부담도 연말로 갈수록 점차 완화될 전망이며, 17년 방송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9% 커질 것이다. 현지화 전략에 기반해 한중 합작 영화 라인업 강화로 내년에는 해외 성과의 이익 기여도도 높아질 것이다. 스튜디오 드래곤(지분율 91%)과 넷마블게임즈(27.6%)가 상장을 추진 중으로 기업 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233	(13)	225	5,821	4,244.0	290	6.6	4.7	1.0	16.4	-
2015A	1,347	53	54	1,409	(75.8)	373	57.2	8.2	2.0	3.6	0.2
2016F	1,481	62	92	2,374	68.5	366	30.5	7.5	1.7	5.7	0.3
2017F	1,637	100	99	2,562	7.9	414	28.3	6.5	1.6	5.9	0.4
2018F	1,756	125	127	3,298	28.7	440	22.0	6.1	1.5	7.2	0.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10/17(월)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2,031.93	2,033.73	2,015.44	2,022.66	2,027.61	
	등락폭	-24.89	1.8	-18.29	7.22	4.95	
	등락종목	상승(상한)	391(0)	406(0)	183(1)	401(1)	315(1)
		하락(하한)	408(0)	377(0)	635(0)	397(0)	487(0)
	ADR	90.91	94.10	93.18	98.59	94.61	
	이격도	10 일	98.91	99.13	98.42	99.00	99.32
		20 일	99.45	99.61	98.77	99.04	99.22
	투자심리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343	297	440	459	332
	거래대금	(십억 원)	5,341	4,832	4,508	4,189	3,698
코 스 닥	코스닥지수	670.64	669.95	663.09	664.92	659.83	
	등락폭	-4.1	-0.69	-6.86	1.83	-5.09	
	등락종목	상승(상한)	410(1)	492(2)	299(3)	575(2)	354(1)
		하락(하한)	673(0)	578(0)	799(0)	502(0)	726(0)
	ADR	97.17	97.10	96.14	96.45	95.76	
	이격도	10 일	98.30	98.45	97.79	98.42	97.97
		20 일	99.00	98.88	97.88	98.06	97.32
	투자심리	30	20	20	20	20	
	거래량	(백만주)	644	594	600	608	508
	거래대금	(십억원)	3,340	3,089	2,930	3,025	2,837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1,732.2	1,266.9	675.6	184.6	71.2	168.5	69.0	9.7	172.6	28.1
	매도	1,780.0	975.8	919.6	484.1	63.2	129.6	66.2	13.0	163.4	27.5
	순매수	-47.8	291.2	-244.0	-299.5	8.0	38.9	2.8	-3.3	9.1	0.6
	10월 누계	9.6	-107.7	30.1	86.1	25.8	-99.9	115.2	-27.6	-69.5	68.0
	16년 누계	-5,282.5	9,673.6	-7,820.2	-2,053.2	733.3	-5,682.8	-883.6	-999.5	1,066.0	3,429.0
코 스 닥	매수	2,612.5	141.7	72.8	27.0	5.0	16.3	8.0	0.7	15.9	20.0
	매도	2,534.2	197.9	91.2	26.3	6.0	23.7	13.9	2.3	19.0	23.7
	순매수	78.3	-56.2	-18.4	0.7	-1.0	-7.4	-5.9	-1.7	-3.1	-3.8
	10월 누계	398.8	-30.2	-290.1	-42.5	-20.2	-117.1	-51.5	-7.3	-51.5	-78.5
	16년 누계	5,537.7	872.3	-4,430.9	-608.4	-293.7	-1,526.6	-664.7	-154.3	-1,183.6	-1,979.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13,218	건설업	-4,861
화학	6,208	서비스업	-1,486
유통업	6,029	비금속	-1,332
삼성전자	12,335	KODEX 200	-3,410
KT&G	5,373	현대산업	-2,695
현대모비스	4,304	현대해상	-2,594
SK텔레콤	4,258	POSCO	-2,487
LG화학	3,669	KODEX 레버리지	-2,322

	연 기 금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17,281	운수장비	-9,392
전기가스	10,273	의약품	-8,789
은행	7,209	음식료	-7,966
삼성전자	18,951	한미약품	-5,421
한국전력	7,731	한국타이어	-4,580
한화케미칼	6,937	두산인프라코어	-3,439
SK	5,607	한미사이언스	-3,178
롯데쇼핑	4,876	현대해상	-3,00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도
	순 매 수		
화학	602	증권	-1,312
전기전자	351	유통업	-1,043
전기가스	334	운수장비	-923
KODEX 레버리지	1,736	KBSTAR 200	-1,285
LG디스플레이	1,128	현대글로벌비스	-1,008
KBSTAR 200선물인버스2X	429	하나금융지주	-969
현대위아	411	미래에셋증권	-858
메리츠화재	380	삼성전자	-756

	보 험		순 매 도
	순 매 수		
미분류	9,905	서비스업	-3,845
기타금융업	5,657	운수장비	-1,676
통신업	3,886	의약품	-1,395
SK텔레콤	4,815	아모레G	-2,967
한국전력	3,466	아모레퍼시픽	-2,733
TIGER 200	3,274	한국항공우주	-1,923
SK	2,968	엔씨소프트	-1,190
하나금융지주	2,594	삼성전자	-1,113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가스	11,666	전기전자	-83,621
미분류	10,226	서비스업	-50,060
은행	6,343	운수장비	-45,479
KODEX 레버리지	15,908	삼성전자	-58,413
한국전력	12,025	KODEX 200선물인버스2X	-14,383
한화케미칼	10,754	SK하이닉스	-13,929
LG화학	8,281	현대차	-13,174
KODEX 인버스	7,439	NAVER	-12,310
KOSEF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합성)	6,326	현대해상	-12,035
OCI	6,219	아모레퍼시픽	-9,398
SK	5,957	기아차	-9,174
동양	5,469	아모레G	-7,992
롯데쇼핑	5,112	현대산업	-7,699

	외 국 인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103,395	미분류	-5,584
서비스업	45,350	음식료	-2,434
화학	28,981	은행	-752
삼성전자	77,915	KT&G	-12,714
SK하이닉스	28,985	삼성중공업	-3,755
NAVER	14,864	현대차	-3,608
SK텔레콤	13,712	LG디스플레이	-2,536
POSCO	11,961	JW홀딩스	-2,346
현대해상	11,859	OCI	-2,049
한미약품	11,663	신세계	-2,048
하나금융지주	11,333	금호타이어	-2,025
아모레퍼시픽	10,192	한화케미칼	-1,839
LG	8,916	KODEX 인버스	-1,79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09	전문기술	-5,006
방송서비스	600	제약	-2,235
IT부품	409	음식료,담배	-708
AP시스템	1,646	에이치시티	-4,877
CJ E&M	332	셀트리온	-1,187
주성엔지니어링	306	원익IPS	-556
에스엠	275	피에스케이	-512
고영	274	잉글우드랩	-42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1,475	제약	-3,043
방송서비스	1,149	의료,정밀기기	-1,137
기계,장비	1,047	반도체	-869
CJ E&M	933	셀트리온	-2,673
한글과컴퓨터	889	비아트론	-1,536
에스에프에이	648	세코닉스	-791
아프리카TV	562	에스엠	-496
AP시스템	553	케어젠	-38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컴퓨터서비스	36	연구,개발	-342
오락,문화	35	반도체	-323
금융서비스	16	정보기기	-200
SK머티리얼즈	60	지엘팜텍	-360
태광	41	코텍	-177
동양이엔피	40	네오위즈게임즈	-155
삼현철강	40	AP시스템	-135
영풍정밀	40	바디텍메드	-10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988	제약	-1,126
전문기술	154	IT부품	-440
소프트웨어	144	방송서비스	-337
AP시스템	1,678	셀트리온	-440
포스코 ICT	32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00
이오테크닉스	260	CJ E&M	-362
SK머티리얼즈	250	슈피겐코리아	-347
골프존	150	메디투스	-332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2,611	전문기술	-8,850
소프트웨어	1,302	제약	-8,508
기계,장비	1,280	음식료,담배	-1,363
컴투스	2,015	에이치시티	-9,340
AP시스템	1,982	셀트리온	-4,199
에스에프에이	1,150	CJ E&M	-2,014
카카오	989	파라다이스	-1,520
피엔티	904	메디투스	-1,361
이오테크닉스	865	세코닉스	-1,311
디오	845	비아트론	-1,309
동진세미켐	790	케어젠	-1,293
한글과컴퓨터	778	원익IPS	-1,254
CJ오쇼핑	571	신화콘텍	-1,15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2,123	반도체	-19,973
의료,정밀기기	1,302	제약	-13,238
화학	1,192	기계,장비	-7,062
솔브레인	2,527	AP시스템	-10,370
카카오	1,997	셀트리온	-5,480
메디투스	1,874	휴젤	-4,109
비아트론	1,465	에스티팜	-2,568
뉴트리바이오텍	1,457	마제스타	-2,400
오스템임플란트	748	파라다이스	-1,989
형성그룹	714	지연코	-1,845
인바디	630	컴투스	-1,557
블루콤	569	바이로메드	-1,389
서희건설	520	동진세미켐	-1,37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유성기업	38 일	넥센타이어	30 일
롯데쇼핑	14 일	고려제강	25 일
한화케미칼	14 일	송원산업	22 일
QV 화학 TOP5 ETN	13 일	KB손해보험	20 일
우신시스템	13 일	우진	19 일
KODEX MSCI World	12 일	빙그레	19 일
TIGER 원유선물(H)	12 일	동일방직	19 일
율촌화학	11 일	영원무역홀딩스	1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베스트투자증권	26 일	뉴트리바이오텍	21 일
엘앤에프	19 일	CJ E&M	18 일
씨엠에스에듀	16 일	메디톡스	18 일
피엔티	13 일	동화기업	16 일
한국알콜	10 일	미래나노텍	15 일
디엔에프	9 일	에버다임	13 일
MDS테크	8 일	GS홈쇼핑	13 일
케이디켄	7 일	대성엘텍	13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29,093	아모레퍼시픽	44,714
KODEX 인버스	137,237	삼성물산	42,594
한화케미칼	55,116	LG전자	41,041
이마트	50,709	신한지주	32,072
한국전력	36,119	아모레G	31,607
KB금융	32,168	POSCO	31,350
현대증권	30,539	SK하이닉스	31,152
TIGER 200	30,207	하나금융지주	28,471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에프에이	9,214	CJ E&M	10,681
AP시스템	3,143	메디톡스	6,882
에코프로	2,359	뉴트리바이오텍	5,551
피엔티	2,186	오텍	3,504
컴투스	2,071	솔브레인	2,516
솔브레인	1,949	휴온스글로벌	2,375
쇼박스	1,792	이오테크닉스	2,273
코미팜	1,627	블루콤	2,222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2,838	16,590	19,429
전기가스	11,666	2,804	14,470
의료정밀	186	14	200
SK텔레콤	4,555	13,712	18,268
KODEX 레버리지	15,908	1,667	17,575
LG화학	8,281	6,261	14,542
한국전력	12,025	1,712	13,737
SK	5,957	6,354	12,311
KB금융	3,676	7,644	11,320
기업은행	1,961	767	2,728
삼성에스디에스	1,506	758	2,264
TIGER	1,634	581	2,215
차이나레버리지(합성)	1,834	20	1,854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661	2,123	2,784
화학	1,035	1,192	2,228
종합건설	121	733	854
카카오	989	1,997	2,986
솔브레인	238	2,527	2,764
이오테크닉스	865	342	1,207
블루콤	122	569	691
CJ오쇼핑	571	101	672
인바디	31	630	661
GS홈쇼핑	212	377	589
벅스	374	186	560
큐리언트	358	199	557
서희건설	25	520	54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한전선	31 일	지투알	30 일	
대한제당	20 일	대양금속	28 일	
부국철강	19 일	맥쿼리인프라	19 일	
일정실업	19 일	인지컨트롤스	18 일	
우성사료	19 일	쌍용양회	17 일	
경농	18 일	세화아이엠씨	16 일	
BYC	18 일	S&TC	15 일	
삼화페인트	18 일	유화증권	1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휴맥스홀딩스	48 일	서연전자	32 일	
케이비제8호스팩	27 일	엠에스오토텍	15 일	
대림제지	27 일	인탑스	15 일	
한창산업	19 일	아바텍	14 일	
한일화학	19 일	제이티	12 일	
대양제지	19 일	네오피델리티	11 일	
대원산업	19 일	영우디에스피	10 일	
신진에스엠	17 일	유아이엘	10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18,587	삼성전자	-535,326	
아모레퍼시픽	-52,565	한국전력	-49,996	
한국항공우주	-36,778	KT&G	-49,332	
아모레G	-30,790	현대모비스	-42,524	
NAVER	-28,309	TIGER 200	-42,315	
엔씨소프트	-25,151	SK이노베이션	-32,246	
현대차	-23,221	현대차	-25,876	
두산인프라코어	-21,978	LG화학	-20,517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23,018	미투온	-10,845	
잉글우드랩	-16,348	잉글우드랩	-9,640	
CJ E&M	-13,272	앤디포스	-9,462	
앤디포스	-12,532	카카오	-9,382	
에이치시티	-9,340	셀트리온	-8,943	
비아트론	-6,546	비아트론	-7,440	
수산아이앤티	-4,614	수산아이앤티	-6,521	
파라다이스	-4,328	에스티팜	-5,836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45,479	9,488	-35,991
음식료	-12,049	-2,434	-14,483
건설업	-15,208	6,459	-8,748
현대차	-13,174	-3,608	-16,782
삼성중공업	-2,170	-3,755	-5,924
한미사이언스	-5,099	-85	-5,183
삼성SDI	-4,719	-303	-5,021
삼성엔지니어링	-3,559	-883	-4,442
삼성카드	-2,938	-1,287	-4,225
현대모비스	-2,380	-1,678	-4,058
엔씨소프트	-3,794	-134	-3,928
LG하우시스	-2,496	-679	-3,175
금호타이어	-1,098	-2,025	-3,123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8,508	-13,238	-21,745
반도체	812	-19,973	-19,161
전문기술	-8,850	-467	-9,318
에이치시티	-9,340	-441	-9,781
셀트리온	-4,199	-5,480	-9,679
파라다이스	-1,520	-1,989	-3,509
에스티팜	-203	-2,568	-2,770
원익IPS	-1,254	-764	-2,018
케어젠	-1,293	-470	-1,763
코오롱생명과학	-491	-1,231	-1,723
주성엔지니어링	-153	-1,329	-1,483
동국S&C	-92	-1,355	-1,447
신화콘텍	-1,157	-248	-1,40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KB금융	832	32,787	
현대해상	555	20,509	
삼성전자	7	11,513	
LG생활건강	9	8,105	
아모레퍼시픽	22	7,986	
POSCO	23	5,229	
두산인프라코어	663	4,625	
한국항공우주	54	3,99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CJ E&M	73	5,299	
카카오	36	2,865	
파라다이스	115	1,739	
코미팜	29	1,256	
컴투스	11	1,069	
AP시스템	41	1,022	
메디텍스	2	1,010	
주성엔지니어링	85	80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666	7,357,904
NAVER	1,694	1,429,850
SK하이닉스	32,070	1,332,492
KB금융	31,683	1,240,379
현대중공업	7,329	1,077,296
LG생활건강	904	827,825
KT&G	7,131	820,072
LG전자	15,931	801,323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263	2,384,445
카카오	11,047	876,031
로엔	3,364	241,856
컴투스	2,381	229,769
바이로메드	2,173	210,814
메디텍스	419	182,801
코미팜	3,860	166,175
파라다이스	9,877	149,64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타금융업	5,783	증권	-7,223
보험업	2,638	건설업	-2,910
운수장비	2,556	전기가스	-1,045
한국토지신탁	4,666	두산인프라코어	-1,893
현대해상	3,272	미래에셋대우	-1,891
KB금융	2,101	현대증권	-1,889
페이퍼코리아	1,994	대우건설	-1,711
삼성중공업	1,569	태림포장	-1,709
두산엔진	1,429	동부증권	-1,475
대영포장	1,409	한화투자증권	-1,449
팬오션	1,354	한화생명	-1,085
KODEX 코스닥 150	750	한국전력	-1,003
SK하이닉스	666	LG전자	-803

KOSDAQ			
	순 증		순 감
종합건설	1,432	IT부품	-1,675
도매	678	소프트웨어	-682
제약	543	반도체	-625
KD건설	1,061	하이셀	-2,684
원익IPS	698	SGA	-586
다원시스	633	카카오	-540
에스코넥	606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500
셀루메드	488	위지트	-322
파라다이스	425	태웅	-317
AP시스템	399	SFA반도체	-314
아가방컴퍼니	386	유진테크	-293
에스에이엠티	362	바이넥스	-238
서한	324	코엔텍	-23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10/17(월)
외국인	9,673.6	-107.7	-372.9	-336.8	-554.4	194.4	32.8	291.2
기관계	-7,820.2	30.1	291.0	481.9	624.3	-570.2	-1.0	-244.0
(투신)	-5,682.8	-99.9	16.3	-34.8	-4.3	0.6	16.0	38.9
(연기금)	1,340.6	-145.9	-35.9	-63.0	5.6	21.6	-6.2	6.2
(은행)	-999.5	-27.6	-0.4	3.6	2.3	-0.4	-2.7	-3.3
(보험)	733.3	25.8	57.5	5.3	20.3	14.3	9.7	8.0
개인	-5,282.5	9.6	59.9	-154.2	-69.8	375.4	-43.7	-47.8
기타	3,429.0	68.0	22.0	9.1	0.0	0.3	12.0	0.6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10/10(월)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KOSPI	2,011.3	1,915.6	1,961.3	2,056.8	2,031.9	2,033.7	2,015.4	2,022.7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1,837.5	21,961.7	22,282.3	23,020.6	21,552.7
(증감액)	-3,802.5	1,630.7	6,853.1	70.1	124.2	320.6	738.3	-1,467.9
(회전율)	29.9	34.0	28.8	34.9	39.5	35.5	32.3	33.5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115.4	394.1	81.4	650.0	-1,470.9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398.6	3,424.6	3,394.4	3,372.4	3,372.1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4,337.8	4,322.1	4,318.9	4,322.3	4,329.7
미수금	92.9	117.6	151.0	162.7	171.4	143.6	139.1	127.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7(금)	10/10(월)	10/11(화)	10/12(수)	10/13(목)
전체주식형	72,741	-7,871	-292	-44	65	-68	-67	-115
(ex.ETF)		-7,075	-328	-55	-26	-41	-53	-118
국내주식형	55,433	-7,475	-209	-40	61	-46	-54	-80
(ex.ETF)		-6,592	-245	-50	-30	-19	-40	-84
해외주식형	17,308	-396	-83	-5	4	-22	-13	-34
(ex.ETF)		-484	-83	-5	4	-22	-13	-34
주식혼합형	8,135	-89	-8	10	-6	-4	0	-6
채권혼합형	28,154	-2,608	-540	-182	-64	-71	-20	-6
채권형	111,333	22,081	133	38	-92	125	182	239
MMF	117,721	23,266	9,789	4,605	-1,452	1,449	-528	76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10/17(월)
한국	8,515	-98	-336	-299	-492	172	29	255
대만	13,005	9	-179	77	45	-207	-94	-
인도	7,565	55	-127	-	-	-127	-	-
인도네시아	2,522	-101	-209	-16	-74	-72	-47	-
태국	3,735	-50	-115	-14	-12	-16	-73	-
남아공	-6,998	-388	-467	-221	-110	-66	-71	-
필리핀	680	-72	-48	-12	-11	-15	-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10/17(월)
회사채 (AA-)	2.11	1.78	1.77	1.75	1.75	1.78
회사채 (BBB-)	8.06	7.87	7.86	7.84	7.84	7.87
국고채 (3년)	1.66	1.37	1.35	1.32	1.32	1.35
국고채 (5년)	1.81	1.44	1.42	1.37	1.36	1.42
국고채 (10년)	2.08	1.62	1.60	1.54	1.55	1.62
미 국채 (10년)	2.27	1.76	1.77	1.74	1.80	-
일 국채 (10년)	0.27	0.05	0.06	0.06	0.05	-
원/달러	1,172.50	1,120.40	1,123.60	1,135.90	1,132.10	1,137.90
원/100엔	972.63	1,080.53	1,081.12	1,097.81	1,085.32	1,093.19
엔/달러	120.55	103.69	103.93	103.47	104.31	104.09
달러/유로	1.09	1.11	1.10	1.10	1.10	1.10
DDR3 1Gb (1333MHz)	1.00	1.17	1.18	1.19	1.20	-
DDR3 2Gb (1333MHz)	1.13	1.23	1.26	1.28	1.29	-
NAND Flash 16Gb (MLC)	1.46	1.73	1.73	1.73	1.74	-
CRB 지수	176.81	190.17	189.07	190.16	190.49	-
LME 지수	2,217.9	2,436.1	2,440.5	2,412.3	2,400.2	-
BDI	478	922	906	885	892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50.79	50.18	50.44	50.35	-
금 (달러/온스)	1,060.00	1,253.45	1,256.50	1,261.05	1,251.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0	11	12	13	14
	日> 8월 경상수지(십억 엔) (2000.8, 1502.7, 1,938.2)	韓> 9월 실업률 (4.0%, 3.8%, 3.8%) 日> 8월 핵심기계수주 QoQ (-2.2%, -4.6%, 4.9%) 유럽> 8월 산업생산 MoM (1.6%, 1.5%, -1.1%)	韓> <b>금융통화위원회 (1.25%, 1.25%, 1.25%)</b>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6, 253, 249) <b>9월 FOMC 회의록 발표</b>	美> 9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6%, -0.3%) 9월 PPI 최종수요 MoM (n/a, 0.2%, 0.0%) <b>연준 옐런 연설(15일)</b> 中> 9월 CPI YoY (1.9%, 1.6%, 1.3%) 9월 PPI YoY (0.1%, -0.3%, -0.8%) 日> 9월 PPI YoY (-3.2%, -3.2%, -3.6%) 실적발표> 美 제이피모간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17	18	19	20	21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n/a, 0.1%, -0.4%)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1.3%, n/a, 1.5%) 유럽> 9월 CPI YoY (n/a, 0.4%, 0.4%)	美> 9월 CPI MoM (n/a, 0.3%, 0.2%) 실적발표> LG 화학	美>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70, 1,142) 中> 3분기 GDP YoY (n/a, 6.7%, 6.7%) 9월 광공업생산 YoY (n/a, 6.4%, 6.3%)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3%) 실적발표> 우리은행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기존주택매매(백만) (n/a, 5.40, 5.33) 9월 선행지수 (n/a, 0.2%, -0.2%) <b>연준 Beige Book 발표</b> 유럽> <b>ECB 기준금리</b> 실적발표> 신한지주, KB금융	유럽> 10월 소비자대지수 (n/a, n/a, -8.2) 실적발표> 하나금융지주
24	25	26	27	28
美> 10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n/a, n/a, 51.5) <b>Fed Bullard 연설</b> 日> 10월 닛케이 일본 PMI 제조업 (n/a, n/a, 50.4) 유럽> 10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2.6) 실적발표> 韓 한샘	韓> 3분기 GDP YoY (n/a, n/a, 3.3%) 美> 10월 소비자대지수 (n/a, 101.5, 104.1) <b>Fed Evans 연설</b> 실적발표> 韓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현대제철, 대림산업, LG하우시스, 스카이라이프, 대림씨엔에스 美 캐터필러, P&G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9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90, 609) 9월 도매 재고 MoM (n/a, n/a, -0.2%) 실적발표> 韓 현대차, POSCO,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GS건설, LG이노텍, 넥센타이어, 풍산, 롯데정밀화학 美 애플, 코카콜라, 테슬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내구재 주문 (n/a, 0.2%, 0.1%) 유럽> 9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5.1%)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NAVER, 기아차, SK텔레콤, LG전자, 현대건설, 삼성전기, 만도, 현대위아, DGB금융지주, 이노션, 한전기술, 아이센스 美 아마존	美> 3분기 GDP 연간화 QoQ (n/a, 2.1%, 1.4%)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9월 실업률 (n/a, n/a, 3.1%) 9월 전국 CPI YoY (n/a, n/a, -0.5%) 유럽> 10월 소비자대지수 (n/a, n/a, n/a) 실적발표> 韓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KT, 삼성카드, BNK금융지주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